9천의 참된시작

장윤영●조자경과 함께
98년을 열어갈 선거도우미용 자료집

꼭 알아야 할 노래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은 보랏빛 꿈결이 아니죠
희미한 불빛 까페의 속삭임도 아니예요
우리들의 청춘은 혼자서 꽃피는게 아니죠
더불어서 꿋꿋하게 피어나는 코스모스
지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꽃
눈물보다 더 빨리 모질게 피어나는 꽃
자주적인 여학생회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처럼
여성해방 그 날까지 변치않을 사랑이죠
인간해방 그 날까지 변치않을 사랑이죠

줏대있는 여학생운동의 약속

장윤영 ●조자경 선거운동본부

13대 건설에 줏대있는 여학생운동의 약속

정책 자료집

글 싣는 순서

0. 글싣는 순서

①. 선거운동원은 어떻게

2. 자주적 여학생회의 새로운 인식

3. 98년의 시대읽기

- 전체운동의 정세읽기

- 민족복현 여학우들의 현주소

- 민족복현 여학생회 진단

4. 98년 민족복현 총여학생회의 정책

- 정책 총론

- 공약

-쟁점교양

선거운동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선거운동원의 자세 - 학우들을 자주적 여학생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워 내야 합니다.

♬후보자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하여 언제나 나는 "후보자의 분신"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후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바탕한 무한한 사랑과 굳건한 신뢰를 가슴속에 새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후보의 분신인 언행과 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회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학생회 선거는 학우들 자신 스스로가 투표 행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원, 학생회의 주인으로 나서는 과정이며, 동시에 1년을 함께 할 우리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장인 만큼 학생회 구성원들의 중심이 바른 단결입니다. 특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생회 선거는 학우들을 역사와 학원의,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워 내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흐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상, 정견, 종교의 차별 없이 학우들을 만나야 합니다.

학우들은 선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우들은 선거에서 주인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원이 직접 학우를 만나 나가면서 주인으로 세울때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견해의 차이가 있다 할 지라도 우리의 한계와 오류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비판의 자세로 학우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책임있게 들을 때만이 학우들은 우리의 정책과 공약에 공감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장은 단정하고 학우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학우들과 맺은 약속 그리고 선거운동원 친구들과 맺은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그러한 믿음의 기본은 자주적 여학생회의 얼굴인 선거운동원의 복장과 예의바른 태도에서 기본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것은 선거운동에서 핵심입니다.

즉시 즉시 나서는 문제들은 선본장님과 정해단장님을 통해 이야기해서 당황하거나 섣불리 화를 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프로답게 일을 해 나아가야겠지요

더불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전체적으로 결정된 조금한 사안이라도 이의를 달것이 아니라 종례시간에 활동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며 제기하자구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구요 절대로 어려운게 아니라는 거 다 알죠 ?

◀◀◀◀◀98년 13대 자주총여를 건설을 위한 목표는?

선거라는 공간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과제를 풀어야 할까요

12년의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많은 여학생운동을 한 선배님들이 계셨지요 지금은 사회의 각 영역에서 각자의 몫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지요
선배님들이 총여학생회에 있을땐 총여학생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자주적 여학생회 12년의 역사동안 변함없는 것 바로 학우들에 근거한 총여학생회입니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여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기 위한 일상적 노력을 해야 하구요 또 아래로부터 물밀 듯 올라오는 구체적 지향을 받아안기 위한 체계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꼼꼼히 보자구요
일상적인 담보를 위한 대중사업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 기획면에서도 다른 여타의 학교와 비교해 절대 떨어지지 않구요 하지만 예전 선배님들이 총여를 운영할때완 달리 많은 기층들이 없어지고 대중사업의 내용이 풍부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13개 단대 그리고 많은 과에 건설되었던 여학생회가 제자리매김을 올곧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둘 없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총여가 총여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금시기 필요한 것은 바로 기층을 건설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의 건설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구요 하나둘 내용적 인적 토대를 쌓아가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금 총여의 출발이 있는 것이지요 그로하기에 올해의 가장 큰과제이자 유일한 과제로서 기층건설과 강화가 놓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체계복구의 닻은 올랐습니다.

——————자주적 여학생회 다시 알아보자구요!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보자

'자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다수는 사전적으로 이야기 하여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바로 여학생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자기몸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굳이 주인이 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은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표현되는 이해와 요구가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학생이라는 이름은 주위에서 요구하고 억압하는 것에 의해 자신의 삶을 아주 많이 축소하며 살아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억압적 요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여학우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서게하는 것이 바로 여학생운동입니다.

첫 번째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가 주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자주**'의 의미 또한 알고 깨달아야 실현 시켜 낼 수 있는 것처럼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먼저 생활에서 우리 여대생을 짓누르고 있는 굴레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자주적 여학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 내는 것이라 했을 때 이러한 깨침을 하나의 집단적인 힘으로 엮어내어 조직적인 큰 힘으로 발동시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주적 여학생운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해답은 없습니다.

'여자들은 소갈머리가 좁아' 라는 말을 함부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내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참여도도 낮고 그나마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것이 여자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도서관에는 함께 밥 먹을 사람들이 없어 밥을 굽는 여학우들이 많다는 것은 자본주의사조가 만들어낸 경쟁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화 개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공동체적 지향이 남성들 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성의 삶에 대한 애정어린 이해와 인식으로 집단적인 힘으로 발휘시켜 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학우 대중이 주인이고 여학우 대중이 만들어 내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들이 세상에서
자주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곧 어려운 말로 인간해방이 여학생운동의 목표입니다.

자주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압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을 가정, 가사의 영역에 묶어 두어 정치에 무관심해야 하고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봉건적 의식을 강조하며 여성을 우매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적극적인 남성은 칭송하는 반면 적극적인 여성은 괜히 튄다는 얘기를 듣기 일쑤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대학내 동아리에서조차, 회장은 남자가 해야 하고 부회장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동아리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전통이라고 바꾸려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진출에서도 여성의 혁할은 보조자적 역할로 평가절하하여 저임금 노동착취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근대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를 사유물로 보고 착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굴종의 사상을 주입시키려 했던 것과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사회의 예비 일꾼이 되어야 할 우리 여대생들은 자본주의의 폐해에서 이용당하고, 여성이라서 한 거풀 더 두꺼워진 식민지의 모순을 겪어야만 한답니다.
따라서 자주적 여학생 운동이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폐해를 깨 부수기 위한 것이라 했을 때 내 조국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은 필히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학생운동을 풀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우리 대학에도 86년도에 처음으로 총여학생회가 만들어 졌으며 98년 에는 13대를 맞이합니다. 이제 총여학생회의 역할을 다시한번 꼬집어 봅시다. 그래야 총여학생회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있고, 나 그리고 우리에 의해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총여학생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총여학생회는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실현시켜내기 위한 가장 유력한 체계이다.
여학우를 주인주체로 세워내자
대학내 비민주적인 성문화와 성차별적인 요소를 타파해내는 투쟁을 학우들과 함께 해내자
사회의 예비 일꾼으로서의 기층여성들과 연대하여 선봉자적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로 묶여지는 우리 여학우의 올바른 모습

-즉 자주적 여성상은

여성이라서 겪게 되는 제반의 모순은 절대 개인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대란에서 태풍의 눈, 여학우들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길은 옆에 있는 또 다른 여대생을 짚고 올라가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자기 실현도가 높은 우리 여학우들이기에 악발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다시 모순 속에 허덕이고 해방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여학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삶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 해결을 위한 의지는 분명 문제가 시작된 지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고 억압받는 집단은 함께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학우 주체의 힘만이 여학우 하나 하나의 올바른 삶을 밝혀 주고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98년의 정세흐름은 이렇다구요!

1. 시대 읽기

김영삼 정권의 임기를 얼마남겨 두지 않은,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벽두를 열어젖힐 대선을 2개월여 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는 한국경제의 토대를 허물어 버리고 있고 한보그룹의 부도는 해태, 기아, 진로, 삼미 등 대기업이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식민지 하청경제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기업의 계속적인 부도는 주가폭락, 환율상승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대외채무액이 5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미국의 개방압력으로 한국경제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 승용차 수입관세의 인하요구, 무기구매 압력 등 한국경제는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부정과 비리행각을 덮어주고 여당의 프리미엄을 보장해준 사람, 정통 야당을 버리고 정치적 소신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 마저 버린 사람, 국민들이 일구어온 최소한의 지방자치의 성과물 마저 버리고 오로지 대통령에만 눈이 먼 정객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려고 하는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통보수니, 내가 더 보수적이니 외치고 다니는 이들,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로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기 식으로 흠집내기에만 골몰해있는 소위말하는 정객들에게 있어 우리는, 우리 국민은 무엇인가?

미국은 미국은 세계 무역기구를 만드는 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으면서도, WTO의 자유무역정신을 부정하는 국내법 슈퍼 301조 동원에 꺼리낌이 없다. 미국은 현행 8%인 우리나라의 승용차 수입관세를 미국수준인 2.5%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8%관세를 유럽연합의 10%관세보다 낮은 것으로 외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한 것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오만하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네브래스카산 수입 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이 검출됐다는 우리쪽 발표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무기구매를 둘러싸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고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주인일 수 없고 노예의 삶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손에 휘둘리는 민족구성원의 삶이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국가경제의 위기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책임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대처하려 하고 있다. 끊임없는 경쟁의 논리로 옆의 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수 밖에 없는 사회, 사회 정의니 양심이니 하는 논리도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논리는 이제 과거의 구태로 낙인찍히고 오로지 생존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뭔가 국민에게 희망을 던져줄까하는 마지막 기대로 텔레비젼을 바라볼수 밖에 없는 우리들, 정치에서 희망이 없어 축구, 야구 등 스포츠에서 희망을 찾으려고하는 우리들.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쟁, 건전한 사회. 한국사회는 끊임없이 벼랑끝으로 침몰해가고 있다.

침몰하는 돛단배 한국,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2. 혼란의 시대 우리가 희망이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혼란의 시대라 이야기하는 민족사의 대전환기라 이야기 하는 지금 다시 희망을 찾기위해, 다시 희망이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전세계 정세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지금 혼란의 상황, 예측불허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후 세계정세 흐름의 중심이 될 곳이기에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세계각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문제,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문제, 한반도의 분단문제등 어떻게 상황이 변화할지 알수 없는 혼란의상황이다. 미국은 제국주의 종주국으로서 동북아에서 약해져가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위해 안달하고 있다. 한반도 남단에서 식민지 대리지배체제를 강화하기위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정간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북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물밑으로는 경제봉쇄 정책과 군사적인 위협은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대북 경수로 지원, 북미 관계개선 등 표면적으로는 유화 정책을 통해 북에 자본주의 요소를 침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에 있어서 냉전 체제가 허물어진후 미국의 잠재적 대결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의 세력확장을 막기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이제 억압과 차취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민중들의 개혁의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다. 이는 올한해 노동자들의 투쟁, 농민들의 투쟁 수많은 애국민중들의 민주화를 위한투쟁의 이 더욱 가열되고 있고 사회의 모순에 대한 자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북또한 미국의 의도를전면 저지하고 있다. 북의 자주외교노선으로 일관되는 외교노선은 절대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분단50년이 훨씬 지난 지금 한반도에는 이러한 정세의 흐름을 타고 통일의 요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분단 상황아래서는 통일 만이 우리민족 전체가 살길이라는 것을우리의민중들은 더욱 각성하고 있으며 식민지 대리체제하의 삶에서 더 이상의 발전을 바라볼수 없음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동포돕기부터 시작된 통일의 열망은 지금 그 흐름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민중들이 통일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것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흐름은 내년 새로운 정권에게 통일의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식민지 상황에서 정치적 간섭, 경제적인 수탈을 계속 방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학혁명 이후 새로운 또하나의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영구분단으로 가느냐, 민족의통일로 가느냐는 갈림길에서 민중의통일에 대한 바램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민중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 15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와있는 지금 그들의 요구가 남한사회의 식민지 상황을 알아내고 이것을 파탄내기 위한 본질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지난 김영삼 정권하에서의 실정과 총체적인 민생의 파탄을 어떻게든 대선을 통해 바꿔보자는요구인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의 민중들의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이러한 민중의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94년 쌀 수입개방 반대, 95년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 처벌투쟁, 96년전,노 학살자 원전처벌, 대선자금 공개투쟁, 올해는 년초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민중들의 투쟁으로 시작하여 대선자금 공개, 전·노 학살자 사면반대, 한총련과 함께 열사투쟁을 진행하면서 민중들의 의식은 날로 고양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역동성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민주화로 더욱 자주화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속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은 어떠한가. 청년학생은 항상 역사에서 구국의 선봉대로서 민중의 자주성을 학우들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어떠한 제도, 어떠한 상황도 청년학생의 선봉대적 투쟁으로 극복해왔었다. 역사 속에서 입증된 청년학생의 이러한 역할은 올해도 내년도 변할수 없는 청년학생의 임무이며 더욱 그 역할을 드높여야 할 것이다. 올해는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광폭

한 공안 탄압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김영삼 정권의 본질을 파해치고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하기위해 투쟁의 선봉에 섰던 투쟁의 성과를 간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역사에서 언제나 한국민중들의 희망군으로 먼 일제시대부터 4·19, 5·18 , 그리고 지금의 김영삼 타도, 통일 투쟁까지 자주성을 유린해온 어떤 세력과도 굽힘없이 투쟁해 왔던 청년학생, 혼란의 시대 민족사의 대 전환기라 부르는 지금의 시대에 청년학생의 투쟁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 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그 투쟁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진 또한 중차대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희망이 되어야 한다.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 자주와 예속의 갈림길이라는 민족사의 대전환기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희망이 되어야 한다. 처음처럼 청년학생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처음처럼 목숨도 내던지는 가열찬 투쟁으로 처음처럼 민중의 희망군으로 다시 서야 한다.

3. 대학, 대학인

대학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며 사회 실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기의 대학과 대학인 모두 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 경쟁의 논리가 도입되는 것과 아울러 대학사회는 그 왜곡된 모습 속에서 스스로 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되어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적 참여보다는, 학문과 진리의 탐구보다는 생존의 문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해 갔으며, 이제 취업준비를 위한 곳으로 대학의 위상은 하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팽창과 함께 다양한 정보의 홍수와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극도의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고도화에서 대학인의 삶은 다양한 양태를 가지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는 진지한 노력, 자신감 있는 자세가 사라져 가고 있다. 함께 하고자하는 참여의식과 자긍심을 갖는 주인된 모습도 사라져가고 있다. 극단적으로 학우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취업이며 이 때문에 그들은 취업공부에 매몰되어 간다.

김영삼 정권은 교육에 시장의 개념을 임의대로 도입하여 교육을 자본화·상품화하고 있으며, 능률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기능교육의 강화 속에서 교육제도는 결국 식민지 권력과 자본을 위한 기능을 양성해 내는 교육으로 전락하게 된다. . 대학의 양적 확대, 질적 하락을 통해 대학의 사회비판적 기능은 거세되고 있으며, 적자생존의 경쟁논리를 통해 기업의 구미에 맞는 값싼 고급인력의 창출을 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학원잠식 공세를 부추기고 있으며 학부제, 최소전공 인정학점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주의, 개별주의, 탈공동체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현실 속에서 현상은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지만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왜곡된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금 시기 대학과 대학인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험난한 교육정세 속에서 대학과 대학인은 본질적 기능을 틀어쥐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변화하는 교육정세 속에서 대학과 대학인의 본질적인 위상은 변화하지 않을뿐더러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시기 한국사회의 상황은 대학과 대학인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 우리의 대학인은 기본을 지켜나가야함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기본은 바로 식민지 사회에서 왜곡된 대학의 3대 기능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 사상으로서의 민족대학을 올바르게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민족대학의 제기는 이 땅이 식민지라는 시대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족대학은 하나의 사상이며 자주, 민주, 통일의 투쟁의 총체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민족대학은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 의해 왜곡된 대학의 모습을 참다운 대학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사상인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민족대학의 지향은 절대절명의 과제로서 현 시기 한국 사회의 대학과 대학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나? 9천에게 접속한다!

나의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둘 느껴지는 나의 후배, 동기, 선배들의 삶.

"솔직히 후회가 들어요. 대학생활의 낭만....그건 진짜 꿈일 뿐이라구요.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도 쉬어가며 하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려면 벌써부터 새벽마다 중도에 와서 자리잡고 고3 때 처럼 공부해야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동기들과 차 한잔 마실 수 없고.. 선배들 좋다고 하지만 언니들은 늘 바빠요. 나와 같은 처지니까..요즘 집안사정도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도 가야하고.."

"나, 어학연수 간다. 이제 3학년이나 되었는데 솔직히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도 벌겸 경험도 쌓을겸 다녀올래....너 그런데 복현이 언니 소식 들었니? 그 언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잖아? 그런데 또 물 먹었데..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시집갈 준비한다더라. 이러면 안되는데 나도 그럴까하는 생각이 든다. 언닌 능력도 많이 아까운데.."

어느 때 보다 경쟁논리로 일관되는 대학의 문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답시고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별 대안없이 이년째 진행되고 있는 학부제와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아직도 남성중심의 사고가 만연한 학원에서 여새내기들은 더욱 방황하게 되고 과선배들도 뿔뿔히 전공별로 흩어져 그 새내기들은 갈 곳이 없다. 특히나 여학우들에게 전공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닥칠 취업의 문턱에서 좀 더 나은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본관 취업상담소앞 로비.
수많은 사람들이 복도를 메우고 있어도 침묵이 맴돌고 한 건이라도 놓칠세라, 남보다 늦을세라 수첩 빼곡이 적어내린 정보이지만 가슴답답함은 여전하다. 괜히 누가 기회를 채갈까 심리전 펼치며 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10분, 20분이 지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김영삼 집권 5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시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시는 어머니의 한숨에서, 직장에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아버지의 기울인 술잔에서 , 무너져만 가는 기업들의 이야기에서 몇억원이 옆집 개이름 처럼 몇조원이 알사탕 값같은 시대. 어머니의 한숨에 나의 가슴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술잔을 보며 남동생보다 나의 휴학을 고민하고, 무너진 기업들은 아예 여학생은 들여놓치 않겠다 엄포를 놓고..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이겨나가는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 뿐이라고 말하는 김영삼, 백년지대계라는 대학교육에 까지 그 더러운 ,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쟁논리를 들여놓은 김영삼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90년대 후반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한 신보수주의 경향으로 대구 번화가 동성로를 활보하는 이들의 최신 패션경향이 복고풍이라 한다. 여학생은 성적이 되더라도 면접에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유행에 따라 이뻐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허겁지겁 유행을 따라간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복현여학우들의 말 속에도 어느새 결혼이나 해버릴까 하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말들이 스며든다.

"하얀 이, 클라이덴", "벗는 것보다 입는 것이 아름답다. 라보라."
전혀 모르던 나라에 와서 한국인 피가 25% 섞였다고 '김치'를 외쳐대도록 하며 미의 화신인 듯 치켜세우고, 누드모델 이승희에게 '한국을 빛낸 여성'이라며 칭찬해 마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강간을 당하고 자살한 한 여대생의 죽음에는 '정조관념이 혼란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이야기한다.
미국의 입김에 왜곡된 성문화가 판을 치고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예삿일인 자랑스런 대한민국. 성을 무기로 돈을 버는 누드모델에게는 칭찬을 하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에게 정조를 잃었으니 죽어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회, 어느 것이 이 사회의 진실인가?

이처럼 삶의 곳곳에서 우리 여학우들의 자주성은 외면당한채 사회총체적 모순의 벽을 개인이 부수어 버리기 버거워 그렇게 지쳐만 가고 있다. 여학우들은 자본이 보여주는 환상에 유행과 사치를 쫓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 도서관으로 나와 자신의 하루를 꼼꼼히 살아가고 있는 민족복현 9천여학우들의 삶을 돌아보자.

날로 높아져만 가는 취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하루종일 TOEIC 책을 끼고 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수업도 빠지지 않고 노트필기도 꼼꼼히 해가는 여학우들의 모습. 할 수 있는 외국어도 하나쯤 있어야 하겠기에 어학당도 다니고 오늘은 어떤 취업정보가 있을까 취업보도실도 다녀오는 3,4학년 여학우들. 경쟁분위기 속에서 서먹해져만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영화를 보러갈까, 차를 마시러갈까..고민하는 새내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임을 알았기에 민족복현 여학우들은 어느 곳이든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찾아가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이상 자신의 틀 안에서 맴돌지 않는 큰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들을 굽어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민족복현의 여학우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 적극적인 주인, 주체로 나서고 있다. 연세대 성추행 진상규명시 만났던 여학우들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분개하고 공감했었고 취업박람회장에서 여성이라고 외면당했던 여학우들 또한 그러한 모습이었다. 많이 개인주의화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민족복현의 여학우들은 그것 또한 자신을 죄어오는 경쟁논리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고민들로 괴로워하기 보다는 나와 같은 처지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9천의 자주적인 지향으로 일구어 지는 98년 자주 총여학생회의 상은 바로 이런 지향들이 다각적인 접속을 통해 거대한 자주적 공동체로 모여들어 그 속에서 9천과 함께 그 해결을 일구어 나가는 것일 것이다.

☺☻☺

민족복현 여학우들을 책임지는 여학생회 어디 한 번 진찰해 볼까요?

문제 하나! 과여학생회, 단대여학생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과여학생회와 단대 여학생회는 가장 가까이에서 여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항상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줄기와 잎이 무성하다 하여도 금새 시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위가 죽어가고 있다면 문제가 더 크겠지요.

경북대 여학생운동을 선배님들의 12년의 자랑찬 역사라 말하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과여학단위부터 단여까지 하나하나 세워온 그 역사를 오히려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꾼들이 주체로 서지 못하는 문제 또한 있지만 여학생회 건설에 대한 관성적인 사고와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진찰해 볼까요?

⇳우 여학생회를 세울 사람이 없어요!

여학생회를 고민하며 매년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학생회 건설에 대해 마음먹기 힘든 것도 있지만 여학일꾼들이 발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기도 합니다. 물론 97년을 평가 반성하며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일꾼들의 헌신성입니다. 몇 안되는 소수의 간부로 민족복현의 9천여학우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학이라는 조직안에서 발전적 고민을 가져갔다기 보다는 그 개인들의 성격이나 여학생회에 대한 애착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여학생회 안에서 여성학과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여학생회 생활을 잘 꾸려갈까에 대한 고민이 주도적으로 되어왔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넘쳐나는 사업에 급급하여 그러한 것 보다는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주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고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커나감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 운동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흐르는 사업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간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해를 거듭하며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연한 여학생회의 모습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여학일꾼들이 여학일꾼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세에 대한 여학생운동의 내용적 고민이 필요하며 여학일꾼들을 그 두리로 묶어낼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었을 때 진정한 여학일꾼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 여학생회? 세워야 된다면 세우지 뭐!

어느 순간부터 여학생회는 여학우들과 함께 우리의 모순들을 깨어나가는 공간이라기 보다 많은 학우들을 묶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학우들의 다양한 지향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 우선 세워놓고 보는 곳으로 원래의 의미를 잃은 채 고민되어 졌습니다. 실례로 법대에서는 회체계 안에 여학생회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 건설

이 불가능해지자 학우들에 대해 그러한 것을 알리는 공고 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학생회 일꾼들 뿐만아니라 학우들도 그러하며 심지어 여학일꾼들도 그러합니다. 몇해 전부터 제기된 여학생회 건설의 불필요성이 바로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학생회, 어떤 소모임도 이렇게 관성적으로 그 건설이 제기되어 건설되어진 곳은 없습니다. 좀 더 여학우들의 공간에 대한 사고로 여학생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며 그냥 한 해 세워놓고 버텨보는 곳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면 여학생회의 발전가망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학생회 일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줏대를 가지고 공간 확보에 대해 제기하여야 하고 학생회 일꾼들에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 나는요...여학생운동 보다 학생운동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세가지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없지만 세 번째의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전체 학생회와 더불어 여학생회의 복구가 절실한 때에 여학일꾼들이 제대로 여학생회에 묶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들의 활동이 담보되지 못함, 그리고 여학생운동을 바라보며 학생운동과의 명확한 관계, 상들을 잡아내지 못함에서 오는 일정정도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학생운동의 내용으로 튼튼히 묶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여학일꾼들이 여학우들을 만나 자신의 내용과 우리의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두가지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여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고민과 이들의 고민을 총화하고 그 해결지점을 모색해 줄 총여학생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료방법은 어떨까요?

⇳우 여학생회 일꾼들은 여학생회로 모여라!

우리 일꾼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항상 고민합니다. 단대 학생회도 내가 가야할 곳 같고, 총여학생회도 내가 가야할 곳 같고..그런 와중에 여학일꾼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여학일꾼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며 자신의 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단위로 묶어야 하겠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여학생회 골간을 세울 때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체계 안에서 여학일꾼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기를 수 있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서로 친하다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 학생회 일꾼들도 여학생회를 잘알자!

여학생회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말로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여학생운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오고 매 시기에 있어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 제기하고 고쳐줄 수 있는 여학일꾼들이 됩시다.

⇳우 과여학생회, 단대 여학생회를 바로 세우자!

지금은 경북대 여학생운동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중심에 놓을지 무엇이 여학우들의 생각인지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체계를 고민합시다. 물론 여학생회 역량에 대한 바른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우 사업만 하는 여학생회가 아니라 흐름을 갖는 여학생회!

요즘들어 선후가 바뀌었다는 고민이 듭니다. 그것은 여학생회의 흐름을 중심적으로 틀어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사업중심의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98년 흐름을 틀어쥐고 그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갑시다.

문제둘! 여학생회의 주된 내용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놓고 투쟁하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피상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여학일꾼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일꾼이 더 잘알고 아닌가를 떠나 요즘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학일꾼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틀어쥐고 나갈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주적 여학생회 전면구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름아니라 여학우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투쟁을 일구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투쟁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학단위의 주된 내용을 올바로 읽어내고 그것에 맞게 학우들을 만나고 여학 두리로 묶어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학생회의 주동적인 투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여대협의 모범적인 투쟁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김보은,김진관 투쟁, 윤금이씨 투쟁 등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투쟁들은 원래부터 그런 요건이 마련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학일꾼들이 그만큼 성과를 남겼던 이유는 주된 내용을 읽어내고 학우들을 만나고 묶어내는 단계들을 잘 잡아내고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근절투쟁을 바라보며 가장 반성해야 할 지점도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성추행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중요한 투쟁과제였지만 여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단계들을 제대로 잡아나가지 못함으로 인해 사실상 유야무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승리적으로 평가할 지점은 있겠죠)
올해 한 해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단위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것이 여학생회의 주된 내용을 읽어내고 여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투쟁을 놓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생운동 탄압이 가속화되었던 시기에 여학생운동이 자신의 입지를 잡아나가지 못할 요건 충분히 있었지만 그것에 있어 여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일구어나갈 수 있는 투쟁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구현해 내어야 할 자주적 여학생회에 대한 몸으로의 실천입니다. 흔히들 여성으로 삶에 있어 세가지 모순들이 놓인다는 점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그 세가지 모순들을 깨어나감에 있어 과학적으로 문제를 분석해내고 중심고리를 찾아나가는 것에 있어 일꾼들이 자신감없어 하는 모습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정리되었던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 하지만 그것의 근본문제와 사업방식에 대한 학습들이 더 잘 진행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극복되어질 지점이며, 또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이지 그것에 있어 커다란 한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13대 경북대 여학생회 이렇게 살아갑시다.

"9천여학우의 바다에 녹아드는 소금"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달리 어떠한 내용이 필요 하겠습니까? 여학우들은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주인이자 시작이며 끝입니다.
기간의 총여학생회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 봅시다. 12대를 거쳐오는 과정 많은 단대 여학생회가 건설되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느다 더 많은 수의 과 여학생회가 사라져 갔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학우들의 구체적 이해와 요구가 수렴되는 통로를 잃어 버린것과 다름아니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성과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승할 것은 계승하되 더 이상 물러섬없이 없애야 할 것을 철저히 우리 9천의 손으로 깨어 나갑시다.
그것이 9천의 힘으로 만들어갈 자주적 여학생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꼼꼼히 어떻게 바꾸어 나갈건지 생각해 보자구요

9천의 든든한 벗으로
경북대 여학생회 새로나기의 참된시작의 용트림을 합니다.

9천의 삶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층이 올곧게 서지 못하고 또한 적은 일꾼들로서 방만하고 큰 대중사업을 하기에 벅차다 보니 자연히 학우들의 작은 소리를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해에는 무조건 간부의 머리수를 늘이는 것만으로 대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면적 재검토를 해봅니다. 자주적여학생회의 지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와 오류가 있었다면 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학우들의 작은 목소리를 담아내고 큰 대중사업이 아니라 작은 요구를 실현하는속에 기쁨 두배의 가치를 창조 하겠습니다

9천 공동체의 참된 시작입니다.

98년은 대선이라는 공간들을 통하여 우리 민중의 요구가 표출되어 짐으로 일정정도의 민주화의 새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그렇게 많은 변화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을 우리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하다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민중의 힘은 역사가 검증해 왔듯 가장 유력하고 올바른 사회를 일구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중의 삶을 생각하며 청년여학생이 가진 순수성으로 새사회로의 자향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봉건적 천대의식이 교육에서 취업이서 기타의 여러분야에서 여성임을 얼마나 천대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 사회속에서 여성은 나라잃은 슬픔조차 버겨운데도 순결을 강제로 잃어야 하며 피해자인 여성이 아직도 살이 있음에도 정당한 요구를 관철해 내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구요
노동자인 여성은 또 어떠합니까? 법조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지않고 여성임이 수치스러워야 하며 또 남편이 없는 여성은 생계조차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전의 사회보다 나아졌다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상위사회라는 목소리는 어떠한 근거에서 입니까? 무엇이 근거이길래 이제 여성의 목소리는 접어야 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일까요 ?

우리 여학우들이 헤쳐나가야 할 숲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 제도적 절차 가 가장 기본임에도 세계여타의 나라와 바교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러히기에 우리 여학우들의 단결

된 힘으로 만히 이렇듯 거내한 힘에 도전하는 투쟁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9천의 집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순수함이 살아 있는 우리 50만 여학우의 힘은 ㅅ;ㄹ로 작지많은 않습니다.
9천공동체를 지향한다하는 것은 학우들의 작은 목소리를 잃은체 큰것만 추구하여 정치편향입으ㄹ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9천의 일성적요구를 학내에서부터 민주적으로일구어 감과 동시에 9천의 힘이 하나로 모일때만이 가능한 것 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주적 여학생회 전면적 실현은 바로 이러한 것이지 결코 학우들과 멀어진 담론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년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한계와 오류는 다른누구도 아닌 9천의 힘으로 딛고 일어 납니다.

올한해 한총련을 향한 상상을 초월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쫓겨 6년의 수배생활로 부모님 얼굴한번 제대로 뵙지못하고 따뜻한 밥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채 명절 아침 보수대에 쫓겨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야 했던 우리학우를 모두 아실것입니다. 또한 12대 총여학생회장니 ㅁ그리고 농대 회장님 그리고 인문대 회장님등등 많은 우리친구들이 그렇게 모진 수배를 살아야 하고 개 맞듯 맞으며 끌려가야 했었습니다. 비판받아야 할것이 있고 고쳐야 할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주적 여학생회의 주인인 학우들에 의해서이지 결코 물리력에 의한 타의의 힘에 서는 아닐것입니다. 또한 12년의 역사를 겸허히 평가하여 학우들의 애정어린 비판은 당연한 여학생회의 주인된 행사이지 일시적 대중사업을 운운하는것으로 또 신사조라 이야기하며 여성문제의 본질을 흐려놓는 것으로는 진정한 혁신을 이야기 할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행만을 남겨둔채 거푼을 빼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12살의 총여가 결코 버릴수 없없었던 여학우들이며 시작또한 여학우들인 것입니다.
12년의 성과를 올곧게 받아안으며 혁신의 명확한 관점 " 여학우들과 함께" 새롭고도 참된 시작을 합니다.

줏대있는 여학생운동의 약속 13대가 책임져 나갑니다.

여학생회를 떠올리며 학생회의 부속불인 듯 생각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나 어려운 정세 속에선 더욱더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중속에서 여학우들의 의식을 읽을 수 없었기에 이러한 이야기를 더욱 듣게 됩니다. 그것은 기층건설을 위한 많은 노력과 피땀어린 간부들의 헌신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채워나가며 우리 여학우들의 급박한 정세를 읽어가며 줏대 있는투쟁을 벌여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무척이나 부족했음을 반성해 봅니다.
올한해 김영삼 정권의 허구적인 여성정책을 여학운의 줏대있는 투쟁으로 부수기 위한 연결고리를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근절투쟁으로 모아가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열사투쟁정국속에 그리고 한총련 출범식 이후의 정세속에서 또한번 올곧게 풀지 못한 투쟁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경북대 내에서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여대협 건설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학생운동의 줏대있는 투쟁을 전개한 역사이며 청년여학도의 선도투가 민중의 자주성을 올곧게 실현되는 사회건설투쟁과 사회제도 모순척결투쟁에서 가장 큰 기여도를 남긴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총여학생회를 총여학생회 답게 만든다는 것은 여성해방을 이야기하며 무조건적인 사회상승을 이야기하지도 또 성 그것만을 바라보며 모순이 다인양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곧은 여학생회는 여성이 그들의 자주성을 거침없이 실현하는 시회건설을 향한 투쟁을 의미하며 그 한길로의 거침없는 걸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역사에 투쟁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9천의 투쟁으로 줏대있는 여학생운동으로 당찬 여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윤영이와 자경이가 드리는 약속 ※

1.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 정신대문제 이제는 일상에서 일구어 가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정신대 문제를 96년 한해 복현에서 일구어 가며 많은 성과지점을 낳았습니다. 또한 정신대 문제는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대선후보조차 정신대문제 완전해결을 하겠다는 공약을 이야기 합니다. 복현골에서 투쟁을 일구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고 이제 이러한 투쟁을 성과로 받아 안고 할머니의 생활적 부분을 챙겨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신대문제 단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할머니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며 생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6분의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경북대에서는 경북대 명예학생으로 계시는 이용수 할머니와 계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민족복현의 모든 학우들을 친손자, 손녀 처럼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로 할머니를 보살펴 드립시다

▶과여학생회와 단대여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수요찻집을 지원합니다.

올해 농대 여학생회에서 진행되었던 수요찻집. 규모는 작았지만 그 속에서 학우들과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바로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긍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할머니께서 일본의 기만적인 민간위로금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여학생회 안에 할머니들의 생활을 챙겨내기 위해 정신대 할머니 후원회를 건설합니다.

- 복현골 생활의 터전 곳곳에서 시작하는 조국통일을 향한 발걸음

▶북한여성의 삶을 아침이슬을 통해 두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가져갑니다.

우리의 또다른 반쪽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알아보며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여성을 돕기 위한 모금을 전개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합니다.
한민족의 반쪽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현여학우에서 뭐 시작하는 북한여성돕기를 진행합니다.

- 사회만연한 성폭력문화척결과 여성의 삶을 가로막는 다양한 제도적 모순을 척

결합니다.

총여학생회의 과제는 여학우들을 억압하는 다양한 제도적 모순을 타파해 내는 것입니다.
이에 두가지 지점으로 투쟁해 나가야 겠습니다.

첫째, 각종의 시험이나 취업요강에 있어 군가산점 인정제 등을 들을 수 있는데 학내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해내기 위해서 올바른 관점을 통한 사회단체들과 연대강화로 해결점을 담보하는 투쟁을 벌여 갑시다.

둘째 성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정권의 여성관이 아직도 가부장제적 모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제국주의 문화의 무분별한 침투로 인하여 야기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여성관을 바탕으로한 여성정책을 실행하도록 사회여성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집권 초기 화려한 여성정책들을 내어놓았지만 미니스커트 단속, 유급 생리휴가제 폐기들을 통해 보여준 정권의 모습은 진실로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있을 대선에서도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표를 겨냥한 사탕발림 식의 여성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허울좋은 공약 몇 개가 아닌 진정 여성이 사회의 일주체로 서 나갈 수 있는 여성정책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식민지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척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에 의해 피해입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알려낸다
윤금이씨 살해사건, 이기순씨 살해사건, 대구에서 있었던 벤넷빌리 리 강간미수 사건..지금도 기지촌에서는 주한미군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알려내어 학우들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벌여 나갑니다.

커피안마시기 운동 - 매주 수요일 총여학생회에 녹차를 비치해 둡니다. < 백원을 내시면 여성학 자료실을 이용하며 녹차를 드실수 있어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제국주의 문화들. 커피보다 녹차를 즐기며 우리의 것을 살려나가는 복현인이 됩시다.

-성폭력 추방! 복현에서 그를 추방한다.

97년 한해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근절투쟁을 벌여내며 학내에서부터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성의식 설문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추방에 대한 여론을 이만학우들속에 형성했고 이제 성폭력 특별법제정의 요구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제정 말 아닌 실현으로 이끌어 냅니다.

올해 하반기 가져갔던 설문작업을 토대로 본관과 교수협의회를 거쳐 진정한 학내 성폭력의 예방의 길인 학칙제정을 해 나갑니다.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을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요원이 상근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지금의 기능을 높여내기 위하여 한달에 한 번 < 매달 셋째주 금요일 >성폭력추방의 날로 정해 성폭력 상담소에 전문요원을 배치하며 아침이슬을 통해 기획글을 실겠습니다.

2. 총여학생회의 위상 제자리 찾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총여학생회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4개의 단대 여학생회와 10개남짓의 과여학생회가 그리고 적은 수의 여연, 탁아 소모임이 있습니다. 12대를 거쳐오며 한해한해 축적되어진 성과와 오류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층을 점점 잃어만 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유력한 공간들을 확보해 들어가는 것, 다시말해 기층으로 뿌리내려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는 것이 바로 총여의 발전전망일 것입니다. .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기층을 세우겠다는 헛된 공약들을 내걸지 않습니다.
3년이 걸리든 몇십년이 걸리든 은근과 끈기로, 부단한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하려 합니다

- 과 여학생회 발전을 위한 부서를 마련합니다.

▶과여발부 제기배경

과라는 공간은 대학들어와서 가장 처음 발딛는 공간이며 자기 삶의 터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잘 수렴할수 있는 유력한 공간이며 총여학생회의 첫 출발이자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복현의 모습을 볼때 과여학생회는 열개남짓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여학생회 건설의 역사에서 한계와 오류 속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과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라 할 때 지금 서있는 몇 개역시 과 여학생회의 자기정체성을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여학생회 자체의 사업적 연구와 내용이 부족합니다.
과여학생회 건설과 더불어 중요히 놓여야 하는 것이 지금 서있는 과 여학생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노력이며 여학생회의 줏대있는 내용성의 확보와 일상사업의 정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총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의 정체성과 자기내용성을 갖는 사업의 정형을 같이 고민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보해야 되기에 여기에서 과여학생회 발전을 위한 부서를 제기합니다.
또 그러한 노력속에 복현여학우의 삶에서 우러나는 총여학생회건설을 위해 과 여학생회건설을 해나가야 합니다.

▶과여발부 체계

과여발부 주체 (총여 1인, 단대 여학생회장 1인)들이 논의하여 과여학생회장 모임을 상시적으로 가져가며 그 안에서의 고민을 총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지도해 냅니다.

▶과여발부의 활동내용

1. 과여학생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학단위 사업적 정형창출과 연구사업
2. 과여학생회장들의 모임을 통한 과 여학생회 실사 파악 그리고 지도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3. 모범과를 발굴하여 전파지도하여 과여학생회의 위상을 강화 발전시켜낸다.

4. 단여와 과여학생회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높여낸다 - 단대적 특성에 맞도록 과여학생회 제자리 찾기의 노력

즉 과 여발부는 과여학생회에 대한 전문적이 연구를 통한 내실있는 지도보장을 위한 단위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여학생회 간부를 위한 실사와 교양을 지속적으로 지도 합니다.
과여학생회의 사업적 정형을 연구하고 정기적인 과장회의를 통해 전파 시켜 냅니다.
일년에 한 번 과여학생회 공동의 대중사업을 열어갑니다.
단대적 특성에 맞는 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단대별 과발전을 고민하는 주체의 회의를 가져 갑니다.
단대여학생회가 없는단위의 과여학생회를 담보하는 단대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것이 단대 여학생회 건설을 위한 것으로 풍부화 시켜내겠습니다.

- 소모임의 제자리 찾기

96년은 연대사업의 위상을 강화하며 연대사업부의 많은 고민들이 성숙되어졌습니다. 하지만 97년 연대사업부와 여연단위 간부가 총여에 없음으로 인하여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수렴하고, 그러한 요구들을 특화시켜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풍부화 시켜주는 소모임이 일정정도 자신의 내용적 부분에서 퇴색되거나 무색해지고 이름만으로 아니면 그나마 유지할수 없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모임은 학우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다양하게 던져주며 삶에서 구체화 시켜내는 작업입니다. 또한 지금의 경북대 여학단위에서 간부재생산의 구조에 가장 큰 틀이라 할수 있습니다.
총여에서 소모임에 대한 지도가 없음으로 여연이나 연사단위의 발전을 담보해내지 못했던 한계를 딛고 제자리 찾기부터 하려 합니다.

▶여연부와 연사단위의 주체를 마련하고 제자리찾기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단위이 주체는 마련되어 있는데 중앙의 주체가 없음으로 인해 단위에서 많이 감뜨게 되고 해야할 일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여 내년에는 중앙과 단위가 같은 감으로 사업을 가져갑니다.

▶여연의 커리를 담아 내던 소식지를 복간합니다.

민족복현의 여연이 정체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커리큘럼을 별 고민없이 그대로 가져감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중앙의 연구와 단위의 모범총화를 통해 발전적 커리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연사단위의 사업적 위상을 재정립합니다.

: 여성농민회와의 유대강화, 사회 여성단체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사회제도 모순척결투쟁을 힘있게 가져갑니다., 디딤과의 연계를 통해 내용성있는 탁아사업을 가져갑니다.

3. 9천의 일상에서 만나는 총여학생회

작은 것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여학우들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 여학우들의 일상적 목소리를 담아내는 통로를 열겠습니다.

▶삐삐로 통하는 우리 여학생회

총여학생회 삐삐로 전화를 걸어 음성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학우들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총여학생회 통신방을 개설합니다.

언제어디서나 누구이건간에 총여학생회로의 소중한 애정을 담아주는 학우들에게로 이동총여의 모습을 드립니다.

-여대생 취업 문제해결! 가능한 것만 약속하겠습니다.

▶여성취업문제 할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취업정보를 여학생휴게실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총여학생회 통신방에서 여대생 취업정보를 접합니다.

여성취업문제 사실 총여학생회가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하는 헛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여성문제는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구조와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회구조적모순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상의 투쟁과 더불어 지금에서의 작은 부분이나마 학우들고 나누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대중사업으로서의 취업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취업정보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따끈하고 신속한 취업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도와 취업상담소에만 있는 취업정보를 학우들의 편안한 휴식처 여학생휴게실과 단대, 과여학생회에 그리고 총여통신방에 비치해 둡니다.

-여성학 관련 자료실을 설치, 개방합니다.

현재 복현에 개설된 여성학 강좌로 인하여 과, 단대, 총여로 여성학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러 오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에게 빈약한 자료를 제시하여 씁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도서관에 몇권의 책과 여학생회에 비치한 자료들로 부족한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총여학생회 여성학 자료실이 작은 부분 담보해 내겠습니다. 다가가기 쉬운 총여로 학우들과의 접속을 시도합니다.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합니다

인문대의 경우 1층밖에 생리대 자판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대의 경우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할 때 생리대 찾아 삼만리를 떠나야 하는 우리 여학우, 일상의 작은 불편 그것부터 개선합니다.